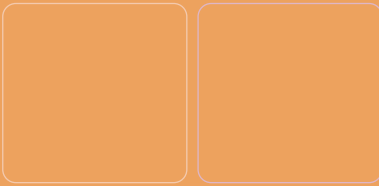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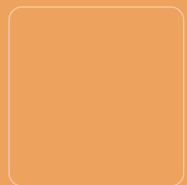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육아정책

| 도남희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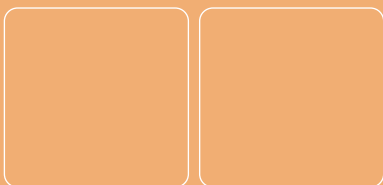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육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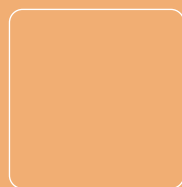
ㅣ 도남희

이탈리아의 육아정책

| 도남희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속 간행하고 있는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는 각국의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006년 일본과 스웨덴의 육아정책을 시작으로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대만,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정책 동향을 꾸준히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저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과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탈리아의 육아지원정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몬테소리 프로그램과 레지오 에밀리아와 같은 우수한 유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예술과 디자인에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탈리아의 육아지원정책」에는 이탈리아의 사회문화적 특징, 육아정책과 제도, 육아지원 서비스 현황과 알가정 양립 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담았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이탈리아의 육아지원정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및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1장

사회문화적 특성 · 4

1. 개요 · 4
2. 역사와 문화 · 9
3. 인구와 출산율 · 11
4. 여성취업률 · 15

2장

육아정책과 제도 · 17

1. 개요 · 17
2. 행정 및 전달체계 · 19
3. 비용 · 재정 지원 · 21
4. 질 관리 시스템 · 23

3장

육아지원 서비스 현황 · 27

1. 육아지원 시설 유형 · 27
2. 육아지원 이용 현황 · 28
3. 교사 자격과 관리 · 29
4. 육아지원 프로그램 · 31



CONTENTS

4장

일 · 가정 양립 정책 · 38

1. 출산휴가 · 38
2. 육아휴직 · 39
3. 유연근무제 · 40
4. 기타 · 41

5장

맺음말 · 44

참고 문헌

· 46

사회문화적 특성

1. 개요¹⁾

유 럽 중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탈리아의 정식 국가 명칭은 '이탈리아 공화국(The Italian Republic)'이다. 지중해 중앙부, 북서에서 남동으로 약 1,200km에 걸쳐 장화 모양을 한 반도와 시칠리아와 사르데냐 두 섬으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이탈리아 반도는 이베리아, 발칸 반도와 함께 남유럽의 3대 반도에 포함되지만, 다른 반도와는 달리 동서 지중해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유럽적인 자연과 문화를 지닌 동시에 지중해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낸다. 이탈리아는 1년 내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 15°C 정도이나, 남북으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온 차가 크다. 이탈리아는 15개의 주(regione)와 5개의 자치지역(regione autonoma)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는 로마(Rome)이다.

이탈리아는 역사와 문화가 전국 곳곳에 아로새겨져 예술의 본고장, 세계문화의 수도, 열린 박물관 등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즉, 문자 그대로 '전 국토가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1) 본 장은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ita.mofa.go.kr>)와 네이버 지식백과 이탈리아(<http://terms.naver.com>)를 기초로 작성함.

나라이다. 이탈리아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총 유적지의 14%(총 586곳 중 35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문화유산의 6%를 차지하는 방대한 양의 문화유산으로 세계 1위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드물게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의무를 헌법(제9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베네치아, 피렌체, 페라라, 아씨지, 티볼리의 빌라 데스테, 시에나 등은 도시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이탈리아(<http://terms.naver.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678&docId=40942&categoryId=34063>,
인출일 2017년 9월 21일)

[그림 1] 이탈리아 지도

가. 민족과 언어 및 종교

이탈리아의 민족은 대부분 라틴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북부에는 독일계 · 프랑스계 · 슬라브계 · 오스트리아계의 소수민족도 있으며, 남부에는 알바니아 계와 그리스계 등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에 걸쳐 분포하는 여러 민족의 피가

섞여있는 혼혈족도 소수 거주한다. 이탈리아는 기원전 천 년경 켈트족, 에트루리아족, 그리스족 등 다양한 인도 및 유럽족이 이동해 정착한 곳이며, 이탈리아인들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반도국으로서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유럽 북동부의 독일·슬라브계, 북서부의 프랑크계, 서부의 카탈로니아계, 동남부의 회랍·알바니아계, 남쪽의 회랍·아랍계가 혼합된 민족이다.

언어는 이탈리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이탈리아뿐 아니라, 인접국 및 해외교포들을 포함해 약 7천만 인구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문화의 선구자 지위를 유지하던 16세기까지는 서구 유럽에서 문화인들이 사용하는 국제어 역할을 담당하였다.

종교는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으로 그 밖에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 가톨릭은 1929년 교황과 이탈리아 정부간의 정교협약(Concordat)에 의해 국교로 인정되었으나, 1984년 2월 크락시(Craxi) 총리와 카사롤리(Casaroli) 로마교황청 국무장관 간에 서명된 신 정교협약(Concordat)에 의해 국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교육기관에서의 의무적인 종교교육이 폐지되고, 종교기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1929년 라테란(Lateran) 조약에 의해 인정된 바티칸시의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결혼식과 장례식을 보통 교회에서 올리는 등 가톨릭은 이탈리아인의 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

나. 이탈리아 정치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로, 국장 최고 의결기관인 내각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정부 각료로 구성된다. 총리가 국무회의를 지도하고 정책의 일체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장관의 직무를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017년 9월 현재 이탈리아의 총리는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로 2016년 12월에 임명되었다. 이탈리아 의회는 각각 5년 임기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외교 기조는 대미(對美) 협력,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와의 정치·경제 통합, 대영친선(對英親善), 라틴아메리카 제국과의 우호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공식적인 이탈리아 원조는 194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그해 8월에 대(對)이탈리아 채권 10억 달러를 포기하였고 채미 동결자산 1억 달러를 해제하였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탈리아는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유럽경제협력기구)와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였다. 영국과는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전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와는 주로 이민에 의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이민 지역 분포 중 남아메리카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 이탈리아 경제

이탈리아 GDP 규모는 1조 8,074억 달러(전년 대비 0.88% 성장)로 세계 9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9,747 달러(2017년 IMF 기준)의 경제대국이다. 이탈리아 지형은 산지와 언덕이 풍부하고 평지는 전 국토의 23%로 협소하여 부존자원이 비교적 빈약하다. 따라서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둔다. 특히 자동차, 기계, 화학, 가구, 의류 및 직물, 가죽 및 신발, 식품가공, 세라믹 등 제조업에 강하다.


이탈리아는 국가 주도에 의한 산업 근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산업 근대화가 지연된 배경에 근거한다. 1930년대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대에 각각 국영기업을 설립하여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통신, 해운, 항공, 도로 등의 기간산업과 금융·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 기간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다. 또한 국가 주도로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지방 전통산업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민간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특화지역이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1950-1960년대 고도성장(연평균 5.5%)을 달성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경제에 힘입어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중소기업은 지역별로 특화된 것이 특징이며 각종 기계(공작, 목가공, 섬유, 석가공, 요업, 농업), 식품가공, 가구, 피혁가공, 귀금속가공, 공예품, 염색, 디자인 등 분야에서 세계 첨단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는 산업이 발달된 북부지역(주로 민간기업 소재)과 그렇지 못한 남부 농업지역(주로 국영기업 소재)간의 심한 소득 격차가 경제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1950년대부터 ‘남부지역개발법’을 제정하고, 남부지역에 투자 시 투자자금의 무상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낮은 노동 생산성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이탈리아의 주요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이탈리아의 주요 특성

국명		이탈리아 공화국 (The Italian Republic, La Repubblica Italiana)
수도		로마(Rome)
언어		이탈리아어
면적		301,340km ² (CIA 기준)
인구		6,067만 명(2016년)
기후		지중해성 기후(연평균 15.6℃)
종교		가톨릭 80%, 기타 20%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주요인사		국가원수: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2015년 2월 취임) 총리: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 2016년 12월 취임)
GDP		1조 8,074억 달러 (2017년 IMF 기준)
1인당 GDP		2만 9,747 달러 (2017년 IMF 기준)

자료: <http://www.mofa.go.kr>, 인출일 2017년 9월 21일
<http://www.naver.com>, 인출일 2017년 9월 21일

2. 역사와 문화²⁾

가. 이탈리아의 역사

우선 로마시대부터 르네상스까지를 살펴보면, BC 7세기경 테베레강 하류에서 일어난 로마인은 BC 270년경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였으며 BC 27년 북쪽으로는 영국, 남쪽으로는 사하라,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동쪽으로는 이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국교화, 331년 콘스탄티노플 천도, 395년 동로마·서로마의 분열 등으로 로마 제국은 분해되기 시작해,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은 정치사에서 사라졌다. 이후 출현한 도시국가는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 동방 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시야 확대, 상인의 현세적 및 합리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다.

신대륙 발견과 오스만투르크의 진출, 그리고 이에 따르는 상업로 변화에 의해 17세기 이후 도시 국가는 쇠퇴하게 되었고 이탈리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하지만 분열된 이탈리아에 18세기말 프랑스 혁명이 전파되고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어, 1861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하는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었다. 처음 수도는 토리노였으나, 이후 피렌체로 옮겨졌다가 1870년 로마 점령에 이어 1871년 로마를 수도로 정하고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 측에 가담해 전승국이 된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으로 혼란에 빠진다. 1929년 정국의 혼란을 틈타 각지의 파시스트들이 무혈 쿠데타에 성공하여 무솔리니 정권이 탄생했다. 1929년 세계공황에 대처하여 무솔리니는 파산에 임박한 산업과 은행에 정부 자본을 투입하는 한편 국내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며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대한 시장 확보 전쟁에 나섰다. 1936년 에티오피아를 병합하고 1937년에는 일본·독일·이탈리아 방공협정을 체결하여 1940년 영국·프랑스에 선전을

2) 본 장은 네이버 지식백과 이탈리아(<http://terms.naver.com>)을 기초로 작성함.

포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만 패하고 만다.

국내에서는 파시스트와 주둔 독일군에 대한 레지스탕스 운동이 격화되어 1943년 7월, 결국 무솔리니 정권은 붕괴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의 정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담당한 기독교민주당·공산당·사회당을 주체로 하여 전개되었다. 1946년 6월의 국민투표와 헌법제정의회의의 선거 결과 이탈리아는 왕제를 폐지하고 공화제가 채택되어 기독교민주당의 알치데 데 가스페리를 수반으로 하는 연립내각이 탄생하였으며, 공화국 헌법은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나. 이탈리아의 문화

이탈리아의 풍성한 문화를 전통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에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시대의 전통 문화가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많다. 이탈리아 민요인 칸초네부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의 일종인 팔라초, 광장 문화를 상징하는 포럼까지 이탈리아 곳곳에 로마의 전통이 남아 있다.

우선, 칸초네(Canzone)는 본래 14~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시에 리듬을 붙여 만든 노래이다. 현대에 들어 이탈리아 민요 또는 가요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가사가 특징이다. 다음으로, 팔라초(Palazzo)는 중세 시대부터 짓기 시작한 귀족의 저택이나 궁정을 말한다. 팔라초의 어원은 라틴어의 팔라티움(Palatium)으로, 고대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팔라티노스 언덕에 자신이 살 집을 건축한 데서 유래한다. 또한 포럼(forum)은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공공 광장으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주로 집회나 시장으로 사용되었다. 주변에 교회, 목욕탕,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해 도시 중심 지역의 역할을 해왔다.

이탈리아는 예술의 다방면에 걸쳐 많은 작가와 작품도 남겼다. 그림에서는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세계적인 화가를 배출했다. 보티첼리를 주축으로 한 피렌체파, 티치아노를 중심으로 한 베네치아파 등 개성적인 화풍을 가진 화파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문학

에서는 <신곡>을 쓴 단테와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가 이탈리아 출신이다. 음악에서는 비발디, 베르디, 푸치니, 벨리니, 로시니, 도니체티 등 19-20세기에 활동한 오페라 작곡가들이 있으며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안드레아 보첼리도 이탈리아 태생이다.

3. 인구와 출산율

가. 인구

이탈리아의 총인구는 2016년 기준 6,067만 명이다(표 1 참조).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2014년 기준 OECD 평균 1.68명, 이탈리아 1.37명)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소폭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수 대비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약 14%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으로 사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2010년 14.2%에서 2014년 14.0%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동 기간 20.1%에서 21.3%로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이탈리아의 인구 현황: 2010-2014

	단위: 천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59,420	59,660	59,898	60,225	60,448
전체 인구수 대비 15세 미만 비율	14.2	14.1	14.1	14.0	14.0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비율	20.1	20.3	20.6	20.9	21.3
인구성장률	0.5	0.4	0.4	0.5	0.4

자료: OECD(2017c),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Italy",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Key tables from OECD.
 (<http://dx.doi.org/10.1787/207522288-table-ita>, 인출일 2017년 9월 22일).

이탈리아의 거주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약 6천만 명이며, 이탈리아 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동하는 인구도 약 3만 명 정도이다. 출생자와 사망자

간 차이를 나타내는 자연 증가가 약 -16만 명으로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표 3, 4 참조).

〈표 3〉 이탈리아의 인구성장률

	단위: 천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59,277	59,379	59,540	60,234	60,789	60,731	60,601
인구 성장률	0.31	0.17	0.27	1.16	0.98	-0.1	-0.21

자료: The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Id=1565fbc0&Report_Name=fertility, 인출일 2017년 9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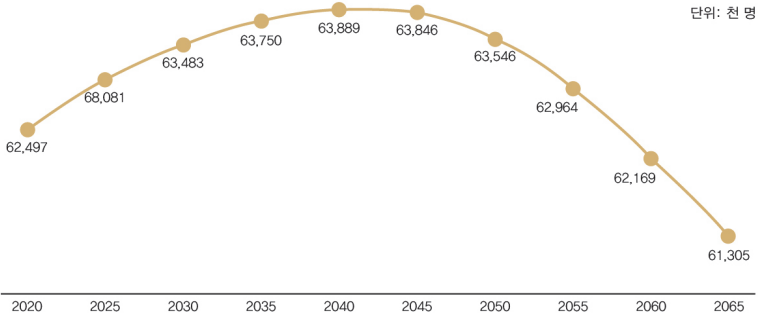
〈표 4〉 이탈리아의 인구 현황과 인구 수 변화 (2016년 기준)

단위: 천명		
거주 인구 ³⁾	자연 증가 ⁴⁾	순인구 이동 ⁵⁾
60,665,551	-161,791	31,730

자료: Italy in figures(2016), Population,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http://www.istat.it/en/archive/200600>, 인출일 2017년 9월 22일).

2020년부터 2065년까지의 거주 인구를 추정한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의 자료에 따르면, 2040년을 기점으로 이탈리아의 거주 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부터는 보다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2 참조).



자료: Italy in figures(2016), Population,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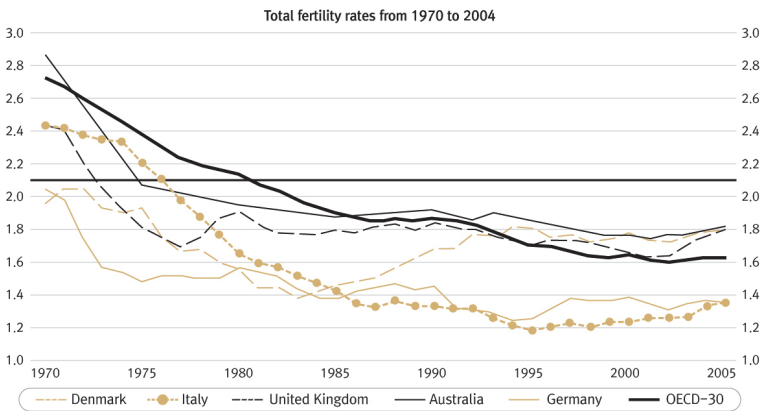
(<http://www.istat.it/en/archive/200600>, 인출일 2017년 9월 22일)

〈그림 2〉 이탈리아의 인구 추정 (2020-2065)

- 3) 거주 인구: 각 지방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와 외국 국적의 시민들
- 4) 자연 증가: 이탈리아와 해외의 거주 인구 중 출생자와 사망자 간 차이
- 5) 순인구 이동: 다른 지방이나 해외로 거주지 이동

나. 출산율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출산율은 OECD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편이며 대체 수준인 2.1보다 훨씬 낮다.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의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1970년대부터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보이기 시작해 2003년부터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자녀를 잘 낳지 않는 일부 원인으로,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노동 시장에서 자리 잡기가 어려우며 부모와 장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OECD, 2007)



자료: OECD(2007), Babies and Bosses: Policies toward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http://www.oecd.org/els/family/39696356.pdf>,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그림 3] 1970-2004 전체 출산율

보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 이탈리아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37명으로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낮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과 비교해볼 때, 이탈리아는 꾸준히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표 5 참조) 2010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1.37명에 달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5〉 이탈리아와 OECD 국가 평균 출산율 추이: 1970, 1995, 2014

	1970	1995	2014
이탈리아	2.43	1.19	1.37
OECD	2.71	1.71	1.68

자료: OECD(2016c), Society at a Glance, Fertility rates across the OECD are typically below replacement level
 (http://dx.doi.org/10.1787/soc_glance-2016-7-en,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표 6〉 이탈리아의 출산율: 2007-201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이탈리아	1.4	1.45	1.45	1.46	1.44	1.43	1.39	1.37
증감률	-	5.0	0	1.0	-2.0	-1.0	-4.0	-2.0

자료: The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ids=1565fbc0&Report_Name=fertility,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지난 십여 년간,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은 1970년 여성 당 2.7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표 5 참조). 이탈리아의 경우 1970년 2.43명, 1995년 1.19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1.37명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생아 수의 상승 추이는 〈표 6〉의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출산율과 각 가정에서 자녀를 갖는 시기가 평균 30.7세로 점차 늦춰짐을 고려할 때 감소폭이 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낮은 출산율은 앞서 언급한 청년들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 교육과 고용이 증가하면서 직업과 수입을 고수하려는 필요와 늘어나는 주택문제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고민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OECD, 2016c:80).

이는 사회적인 만혼 현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이탈리아의 평균 결혼 연령은 점차 늦어지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남성은 37.0세이고 여성은 33.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또한 여성이 첫 자녀를 갖는 연령 역시 점차 증가하여 1995년 28.1세에서 2014년 30.7세로 나타났다(ISTAT, 2016).

〈표 7〉 평균 결혼 연령

단위: 세

연도	남성	여성
2005	34,7	30,1
2006	34,8	30,4
2007	34,7	30,7
2008	35,0	30,9
2009	35,2	31,1
2010	35,5	31,4
2011	35,8	31,7
2012	36,0	31,9
2013	36,4	32,3
2014	36,6	32,6
2015	37,0	33,0

자료: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2016), Italy in figures: Population
 (http://www.istat.it/en/archive/200600, 인출일 2017년 9월 22일)

4. 여성취업률

0 -14세 자녀를 1명 이상 둔 이탈리아 여성(15-64세)의 취업률을 알아본 결과, 이들 여성의 전체 취업률은 55.3%로서 전반적인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전체 국가 평균인 67.8%, OECD 31개국 평균인 66.2%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표 8 참조).

〈표 8〉 1명 이상의 자녀(0-14세)를 둔 어머니(15~64세)의 취업률(2014~)

단위: %

	취업률	전일제 취업률	시간제 취업률	시간 정보 없는 취업률
이탈리아	55.3	34.8	20.4	0.1
OECD-31 평균	66.2	-	-	-
유로존 평균	67.8	-	-	-

자료: OECD(2014a),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LMF1.2.A, Maternal employment rates, 2014 or latest available year를 재구성함.

한편, 이탈리아의 3-5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은 54.6%, 6-14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은 56.4%로 OECD 평균인 66.7%, 73.0%보다 각각 낮아 비교적 저조한 어머니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표 10 참조).

또한 자녀의 수에 따른 이탈리아 여성의 취업률을 살펴보았을 때, 자녀가 없는 여성들보다 오히려 자녀가 있는 경우 약 11-12%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표 9 참조). 그러나 연령이 어린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표 10 참조).

〈표 9〉 자녀수별 어머니의 취업률

단위: %

자녀 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	42.1	42.9	43.3	43.8	43.0	42.8	43.3	43.9	43.3	43.4
1 이하	53.3	54.7	54.9	55.6	54.7	54.5	54.4	55.1	54.5	55.3
1	57.1	58.2	58.6	59.5	58.3	57.9	57.7	58.3	57.4	58.3
2	50.3	51.8	51.8	51.9	51.6	52.2	51.6	52.8	52.7	53.5
3 이상	35.9	38.9	37.3	39.6	38.0	34.2	38.0	38.9	37.5	37.4

자료: OECD(2014b),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LMF1.2.A,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Employment rates(%) for women(15-64 years old) by the presence of at least one child(aged 0-14) and number of children aged 0-14, 1998-2014를 재구성함.

〈표 10〉 가장 어린 자녀 연령별 어머니의 취업률

단위: %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0-14세	0-2세	3-5세	6-14세
이탈리아	55.3	53.6	54.6	56.4
OECD-29 평균	65.7	53.2	66.7	73.0
유로존 평균	67.8	57.7	69.0	73.5
EU 평균	67.6	55.3	68.6	74.6
미국	65.7	55.8	63.3	71.1
일본	63.2	47.4	60.8	72.2

자료: OECD(2014c),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LMF1.2.C,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4 or latest available year를 재구성함.

육아정책과 제도⁶⁾

1. 개요

이탈리아의 유아교육·보육은 19세기 개인 자본가와 종교 기관들이 가난한 근로 계층과 극빈자들을 위해 설립 하였던 자선 보호시설이 추후 의료 관료들과 공공 기금에 의해 지원되며 발전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의무적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6세로, 3-6세를 위한 분리된 교육 체계와 3세 이하 아동을 위한 보육 체계가 있다.

국가적인 교육 시스템으로서의 유아교육은 1968년부터 시작 되었다. 1971년을 기점으로 이탈리아의 공공 부문 영아 보육은 크게 변화되는데, 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공공 사회 서비스를 인준한 법 1044와 여성 근로자에게 5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출산 전 2개월과 출산 후 3개월)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모성법이 제정된 것에 기인한다.

이탈리아의 보육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첫째, 유급 육아 휴직으로 6개월 이전의 영아들은 가정 밖의 보육을 받지

6) 본 내용은 "IEA(2016). Early Childhood Policies and Systems in Eight Countries, p.152-153"과 "Gandini, L., & Edwards, C. P. (2006) 『어린이(Bambini): 이탈리아 접근의 영아 보육. 김미숙·박숙영(역). 서울: 창지사 (2001년 원저발간)』를 바탕으로 서술함.

않는다. 둘째, 이탈리아에서 보육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윤곽한 사회적 및 지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양육자들이 각 어린이에게 가장 훌륭한 보육을 제공할 방법을 알기 위해 세심하게 기록하고 동료들이나 감독들과 함께 그들이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관하여 논의한다. 넷째,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보육을 국가에서 보조받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3-6세 아동의 경우 92%에 달하는 높은 교육보급률을 보이고 있다(TFIEY, 2016).

이탈리아는 유아 교육 및 보육(ECEC) 시스템이 분리되어, 각기 다른 당국에서 이를 책임지고 있다. 아동 연령에 따라 기관 및 담당국이 구분되어 있는데, 3-6세 아동을 위한 ‘Scuola dell’ infanzia’를 관할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를 위한 ‘Nido’를 담당하는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다(〈표 11〉 참조).

〈표 11〉 0-3세와 3-6세를 위한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Nido Scuola dell’infanzia Sezioni-primavera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영유아 센터 3-6세 아동을 위한 유치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2-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서비스(Spring sections)
0-3세 NIDO & Other Services	
영유아센터(Nido): 개인 요구에 따른 상근직 서비스 지침이 없거나 지역적 지침 Nido: 전 국민의 19% 참여	시간제 혹은 가정 기반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관, 기타 기타 0-3세 서비스(Sezioni Primavera 포함): 2-3% 참여
3-6세 Scuola dell’infanzia & Sezioni-Primavera	
권리로서의 유아 교육 국가적 지침 Scuola dell’infanzia: 국가의 95% 이상 참여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의무는 아님) 주립, 주에 의해 지원받음, 민간 Sezioni-primavera: 약 4-5% (주로 남부)

자료: TFIEY(2016), Overview of ECEC provision in Italy: Diversity and new challenges, Susanna Mantovani, 1,2, The Italian ECEC System,

2015년 7월 통과된 ‘이탈리아 법 107’의 교육 체제에 대한 최근 개혁안은 분리된 체제를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의 소관 하에 출생부터 6세까지 하나의 ISCED⁷⁾ 수준 0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담고 있다.

2015년 7월 통과된 법 107에 의하면, 향후 0-6세 연령 집단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히 ECED에서 법정 자격, 직원 비율, 직원 자격, 국가적 교육과정, 규제와 질 감시 모니터링 정책 등 여러 변화를 구상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주요 정책 변화

Level	ECED ⁸⁾	PPE ⁹⁾
ECE 지출의 정책 변화	●	●
ECE에 대한 법정 자격에서의 정책 변화	+	○
ECE 아동에서의 정책 변화: 직원 비율	+	●
ECE 직원 자격에서의 정책 변화	+	●
국가적 ECE 교육과정에서의 정책 변화	+	●
ECE 규제와 질 감시 모니터링에서의 정책 변화	+	●
아동 평가에서의 정책 변화	○	○
기타	+	+

주: ○ 지난 5년간 변화가 없었으며, 현재도 없음

● 지난 5년간 변화함

+ 향후 5년 이내 변화를 계획함

자료: IEA(2016). Early childhood policies and systems in eight countries: Findings from IEA's early education study (<http://eces.iea.nl>, 2017년 10월 2일 인출).

2. 행정 및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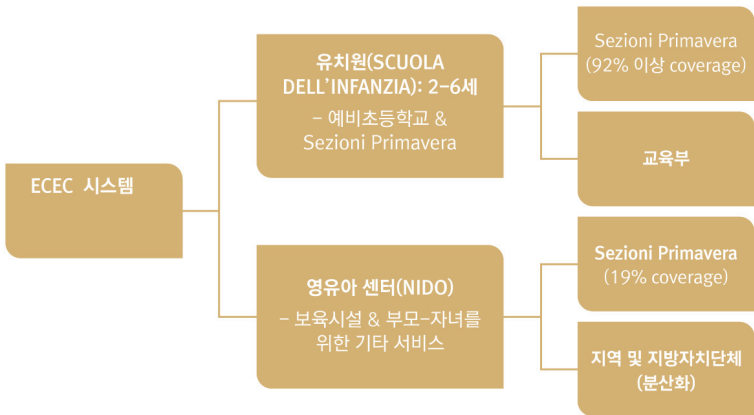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ECEC는 교육부와 노동 및 사회정책/복지부 및 기타 부서에 걸쳐 공유된 국가 수준의 다수준 통치모델임을 반영한다. 보건부는

7) ISCED(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1970년 초, UNESCO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각 국가별 및 국제적으로 교육 통계를 모으고 제시하기에 적합함.

8) ECED(Early Child Education Development): 0-3세 아동을 위한 서비스

9) PPE(Pre-Primary Education): 초등학교 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

ECED와 PPE를 아우르며 보육원과 유치원의 기간별 위생 통제, 모든 아동의 장애 진단과 인증, Nido에 있는 아동의 영양 조절 및 소아과 진찰을 담당한다. 재무부는 2015년 통과된 재정법에 따라 초기 이동을 위한 기금 배분을 맡고 있다. 2015년 7월 교육 체계 개혁안(법 107)은 통치체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법안으로, 교육부는 통합된 0-6세 체제에 대한 책임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 THEY(2016), Overview of ECED provision in Italy: Diversity and new challenges, Susanna Mantovani, 1,2. The Italian ECEC System.

[그림 4] 이탈리아의 ECEC 시스템

0세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센터 기반의 서비스는 Nido(영유아센터, 유아원, 기존의 nido d'infanzia) 및 통합적 서비스의 기타 유형(가정 기반의 일부 정기적 보육 포함)이며, 노동자 및 사회정책부의 책임 하에 있다.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센터 기반의 서비스는 Scuola dell'infanzia(유치원)로, 주 교육 체제의 첫 단계이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교육부에 의해 식사와 교통을 제외한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주립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3-14세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는 종합적인 기관에서 주최된다. 지방자치체의 예비초등학교(pre-primary school)는 널리 퍼져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0-6세까지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ido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3. 비용·재정 지원

이탈리아의 공적 비용을 보면, 전체 GDP비용 중 공적 비용은 0.5%이며 이는 유럽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 중에서 보육비용은 0.1%이고 초등 전 비용이 0.4%으로 나타나 보육보다는 대부분 초등 전 비용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초기 아동기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공 지출(2013)

단위: %

	합계	보육	초등 전
EU 평균	0,7	-	-
이탈리아	0,5	0,1	0,4
한국	0,9	0,6	0,3
일본	0,4	0,3	0,1
미국	0,3	0,1	0,3

자료: OECD(2013a),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PF3,1A,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한편 영유아기의 아동 1인당 사회적 지출의 현금혜택과 세제 혜택을 살펴본 결과, 2013년 기준 1인당 44,990달러가 지출되었다. 그 중 현금 및 세제 혜택이 가장 많은 22,250달러, 보육은 20,560달러, 그 외에 다른 혜택과 교육에 지출되었다.

〈표 14〉 영유아기 아동 1인당 사회적 지출(2013)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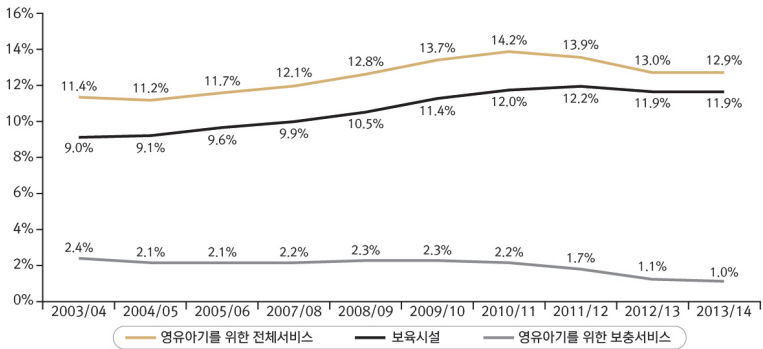
	현금 및 세제 혜택	보육	기타 유사 혜택	교육	합계
이탈리아	22,250	20,560	1,500	690	44,990
일본	14,860	15,620	1,330	0	31,810
한국	9,320	29,990	720	50	40,080
미국	12,640	12,550	2,790	550	28,520

자료: OECD(2013b),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PF1,6,C, 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are important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 (0-5 year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2016년 Istat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린 아동들을 위한 사회·교육적 서비스에 10억 55,900만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3% 감소한 것이다. 가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동 지출하는 합계는 2013년 기준 약 31,000만 유로 정도로, 10년 전에 비해 보육에 대한 지출을 늘린 결과이다(그림 5 참조).

지역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지원을 받는 서비스 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중북부 지역은 28.2%의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탈리아 남부는 11.5%의 시설만이 가능하다. 아동의 경우에도 중북부 지역은 17% 이상의 3세 미만 아동이 지역적 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남부와 섬 지역은 5% 미만에 불과하다.

지방시 별로 비교해보면, Trento는 거주 아동 당 3,560 유로로 가장 높은 투자를 보였고 Bologna와 Roman가 각각 단위당 3,400 유로 이상과 약 2,950 유로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한편 Reggio Calabria는 아동당 31유로, Vibo Valentia는 57유로, 그리고 Catanzaro는 67유로로 하위권 도시였다.



자료: Istat(2016). Socio-educational services for early childhood: The census of public and private units and municipalities expenditure.
http://www.istat.it/en/files/2016/11/EN_Asilii-nido_rev.pdf?title=Socio-educational+services+for+early+childhood+-+4+Nov+2016+-+Full+text.pdf,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그림 5] 100명의 거주 아동 당 초기 아동기를 위한 사회 교육적 서비스

4. 질 관리 시스템

○ CED 국가들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질 모니터링은 서비스 질 모니터링, 교직원 질 모니터링, 아동발달 및 성과 모니터링, 커리큘럼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탈리아는 아직 유아 교육·보육(ECEC) 부문에서 국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으며, 국가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통합 ECEC시스템(La Buona Scuola, 좋은학교개혁법, 제107/2015, 181조)을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와 교직원의 질은 감독(supervision)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감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며 주로 사례별 기준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유치원에서 수행된다. 이는 부모 설문조사 결과, 내부 문서 분석, 관찰, 인터뷰, 직원 설문조사, 자체 평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설문 조사는 자율적인 학교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에는 유치원 자체 평가 보고서 형식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표 15〉 서비스와 직원의 질을 위한 모니터링

	교사·아동 비율	실내·실외 공간	건강 및 위생 규제	안전 규제	사영아·기교유아 및 놀이 도구	최소 직원 자격	일일·주간 계획	그룹 환경	교육과정 실행	이력관리	재원관리
ECED	○	○	○	○							
PPE	○		○	○	○	○	○	○	○		

주: ECED는 보육시설 중심의 0-3세, PPE는 유치원 중심의 3-5세 대상임.

자료: OECD(2013d), Online Survey on Monitoring Quality in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Network on ECEC, OECD, Paris; OECD (2015d),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OECD Publishing, Paris, Table 3.2 <http://dx.doi.org/10.1787/888833243065> and Table 4.2 <http://dx.doi.org/10.1787/888833243213>,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모니터링 서비스의 질은 주로 유아의 보육비, 공간 요구사항, 건강 및 안전 규정 등과 같은 이탈리아 보육 시설의 규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직원 자격, 놀이 및 학습 교재, 직원의 계획 수립, 근무 조건, 교육 조건 및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 구현 등을 점검한다(표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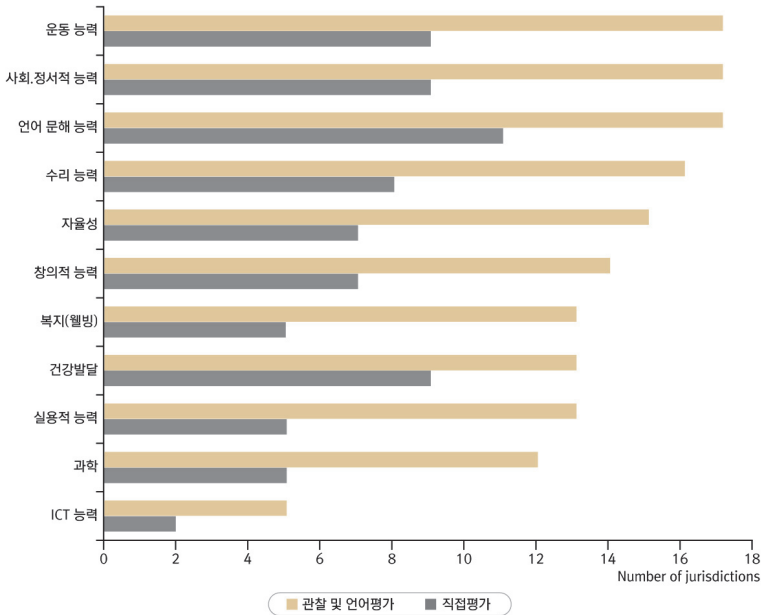
교직원 질 관리의 초점은 직원 자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들은 학부모와의 소통과 교육 과정의 원활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직원 평가는 종종 자기반성(self-reflective) 보고서, 체크 리스트 및 자기 신고서를 사용한다. 서비스와 직원의 질을 위한 모니터링은 내부와 외부에서 진행되며, 외부는 검사와 조사 등이 있으나 내부는 자체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 16 참조).

〈표 16〉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되는 서비스의 질

	외부		내부			
	검사	조사	동료 평가	동료 평가	직원 시험	자체 평가
초기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	○				○
보육시설(ECEC)	○	○ (서비스)				○
유치원(PPE)	○	○				○

자료: OECD(2015b),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Table 3.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888933243071>,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일반적으로 유아들의 발달과 유치원에서의 성장과정은 직접 평가와 비공식적인 관찰과 일상적이고 비조직적일 수 있는 구술평가를 통해 진행된다(그림 6 참조). 평가는 운동, 사회·정서, 언어와 문해 능력, 수와 창의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 의해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모니터링에는 중앙 집중화된 국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예비 유아교육에서는 국가적인 평가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자료: OECD (2013e), Online Survey on Monitoring Quality in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OECD Network on ECEC, Table A5.1, OECD, Paris; OECD (2015e),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Chart 5.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888833243423>,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그림 6 모니터링 되는 초기 아동 발달 영역과 모니터링 방법

이상을 비추어 볼 때, 이탈리아는 질 평가에 대한 향후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아직 ISCED 0에 위치한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으며 이탈리아 전역의 모니터링 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제한되어 있으며, 현장 실습 또는 현장 연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ECEC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나, 그러한 서비스의 향상이 이탈리아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2015년 통과된 새로운 법 107의 정착에 따라 추후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OECD, 2015).

한편, 질 관리의 주요 지표로 볼 수 있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0-3세 영아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7이며, 2-3세의 예비 유치원은 1:15, 유치원은 1:25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표 17 참조).

〈표 17〉 교사:아동 비율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
Nido (0-3세)	보육시설	평균 1:7 (지역적 기준)
Scuola dell' infanzia (3-6세)	유치원	1:25
Sezioni Primavera (2-3세)	특별서비스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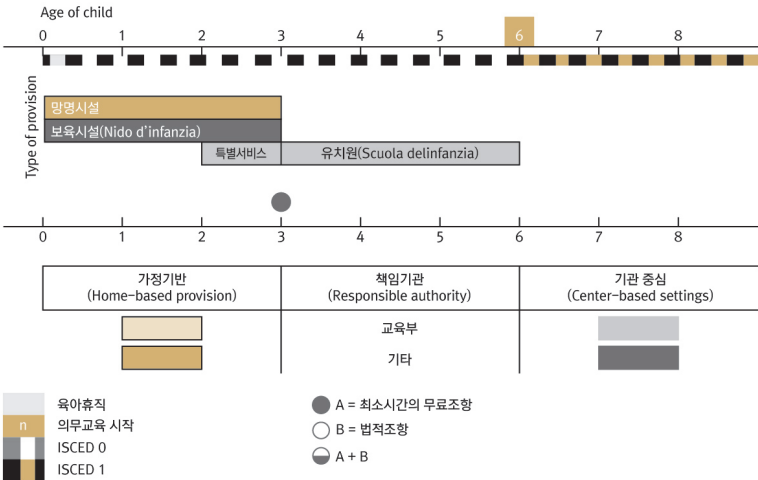
자료: TRIEY(2016), Overview of ECEC provision in Italy: Diversity and new challenges, Susanna Mantovani, 1,2, The Italian ECEC System.

그러나 3세 미만을 위한 환경의 집단 규모는 집단보다는 환경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며, 교사와 아동 비율은 속한 환경의 유형 분류 체계와 교사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예비초등학교 환경에서는 최소 18개의 교실과 최대 26명의 아동, 그리고 지역적으로 결정된 예비초등학교(PPE) 또는 유치원 등 지방 자치체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가진다. 집단 규모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변화될 수 있으며, 시스템 개혁 직후부터 첫 2년까지는 특히 더 변화될 수 있다.

육아지원 서비스 현황

1. 육아지원 시설 현황

이탈리아의 기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ECED)와 3세 이상 아동이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를 지원하는 예비초등학교 서비스(PPE) 또는 유치원으로 분명히 구분된다.



자료: IEA(2016), Early Childhood Policies and Systems in Eight Countries, Findings from I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y, p. 152.

[그림 7] 이탈리아의 시설유형과 연령

3세 미만의 이동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영유아센터) 또는 Nido d'infanzia 및 놀이 공간, 부모와 아동 집단, 가정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부가서비스(Servizi integrativi)가 있다. 3-6세 아동의 경우, 유치원(유아학교, preschools) 또는 Scuola dell'infanzia에서 유아교육을 제공한다(그림 7 참조).

이들 기관은 종일제와 반일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떤 기관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어떤 기관은 사적 기금과 혼합된 자금으로 지원된다. 자금은 공급자 쪽에서는 자원 및 자본 보조금을 통해, 수요자 쪽에서는 세금 공제, 바우처와 수수료 인하(ECE 한정) 등의 지원을 통해 조달된다.

2. 육아지원 이용 현황

이탈리아의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여 3세 이하 는 전체 아동의 24.2%, 3세에서 5세까지는 95.7%가 등록된 상태이다 (IEA, 2016: 154).

〈표 18〉 0-2세 참석율과 3-5세 등록율(2014)

구분	0-2세	3-5세
이탈리아	24,2	95,1
스웨덴	46,9	94,3
한국	35,7	92,2
일본	30,6	91,0
유로존 평균	37,2	85,7
EU 평균	36,5	85,0
OECD-34 평균	38,1(23)	83,8
미국	-	66,8

단위: %

자료: OECD(2014d), Family database, Chart PF3,2.E, Enrolment rates for 3-to-5-year olds in pre-primary education school, 2014 or latest available과 participation rates in formal childcare and pre-school services, 0-to-2-year-olds, 1995-2015를 재구성함.

유아의 ECEC 기관 이용률을 보면 ISCED 0수준에서 3세는 92.3%, 4세는 96.2%, 5세는 88.8%, 6세는 2.3%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이는 교직원 자격이 거의 ISCED 0수준임을 뜻한다. 그러나 5세부터 낮은 비율이지만 ISCED 1 수준의 교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6세 이후는 ISCED 1수준이 대부분이었다.

〈표 19〉 기관 이용률

구분	단위: %				
	3세	4세	5세	6세	7세
ISCED 0	92.3	96.2	88.8	2.3	(-)
ISCED 1	(-)	(-)	8.5	96.2	98.4

자료: Education and Training(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Eurydice and Eurostat report, p.174, (<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3. 교사자격과 관리

교사자격은 대체적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며 행정체계의 형태(분리, 통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탈리아는 분리형 시스템이므로 취업 보장에 대한 법적 권리도 높은 연령의 유아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기관유형에 따라 교원의 병칭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보육시설(daycare center)의 어린 유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자(educator)라고 명명하고 교육시설(pre-primary setting)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교사(teacher)라고 한다. 그러나 유치원 및 학령 전 교사(preschool/pre-primary teacher)의 자격요건이 보육 시설 교사(educator)보다 높다(신동주, 염지숙, 장혜진, 2013: 35)

영유아 대상의 교사 혹은 양육자 자격은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구분된다. Scuola dell' infanzia(3-6세)는 2012년부터 초등 및 유아 학교를 위한 대학 5년 과정이 의무적이다. Nido d' infanzia(0-3세)는 사회-교육적 커리큘럼을 지닌 중등학교 과정이 필수적이며, 교육학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필수는 아니다. 전문적인 발달 서비스에서는 연 40-50시

간과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에서의 팀워크가 요구된다(표 20 참조). 이를 볼 때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Scuola dell' infanzia 교사 자격이 가장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0〉 교사 혹은 양육자 자격 요건

구분	자격 요건
Scuola dell' infanzia (3-6세)	대학 5년 과정 의무
Nido d' infanzia (0-3세)	사회-교육적 커리큘럼을 지닌 중등학교 과정 필수
전문적인 발달 서비스	연 40-50시간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에서의 팀워크

자료: THEY(2016), Overview of ECEC provision in Italy: Diversity and new challenges, Susanna Mantovani, 1.2. The Italian ECEC System.

대부분의 분리형 국가에서 높은 연령의 유아(ISCED 0,2)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대학교육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높은 연령의 유아를 담당하는 교원의 최고자격 기준이 석사 학위소지이다(신동주, 염지숙, 장혜진, 2013:37). 2~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 동안의 대학교육을 받고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한편 0~2세를 담당하는 보육시설 교사에게는 자격에 대한 국가수준의 기준이 없으며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시설의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최근 최소 대학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으며 유치원 교사와 같은 수준인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교원자격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관할한다.

한편 교사양성 교육제도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교원 종류에 따라 교사자격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탈리아에서는 유치원 교사, 보육교직원 및 가정보육시설 교직원 등의 교원에게 별도의 자격증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능력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은 낮은 연령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선택사항인데 원래 연령이 높은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는 의무사항이다.

2015년 7월 새로운 개혁안은 주립 학교의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수

진의 의무적인 훈련을 안내하고 있다. CPD는 모든 다른 직원과 지도자들에게는 선택이다. 직원과 지도자들의 자격, 보수 및 훈련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논의 중에 있는 새로운 국가적 계약과 0-6세 시스템 통합의 일부를 예상하는 법안의 주체인 새로운 2015년 교육체제 개혁안 모두에서 기대된다(IEA, 2016: 153-154)

4. 육아지원 프로그램

가. 몬테소리 교육¹⁰⁾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박사가 개발한 몬테소리 교육은 출생부터 성인기까지의 과학적 관찰에 기초한 아동 중심 교육으로 세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본 철학은 아동이 자연스러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으며 지지적이고 사려 깊게 준비된 학습 환경에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간의 정신과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인 면을 아우르는 전인 발달을 중시한다.

1) 역사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는 의학 교육을 받은 후, 1897년에 로마 대학교(University of Rome)의 교육학 강의를 통해 교육 이론, 교육 철학과 방법을 개발하였다. 1907년 그녀는 로마의 연립 건물에 첫 번째 교실인 Casa dei Bambini(아이들의 집)를 개설했다. 몬테소리는 처음부터 아이들에 대한 관찰과 환경, 재료 및 가능한 수업에 대한 실험 작업을 기반을 중시하는 ‘과학적인 교육학’이라고 불렀다.

10) 본 장은 위키피디아 몬테소리 교육(https://en.wikipedia.org/wiki/Montessori_education)과 이영석 외(2014), 『몬테소리 개론』의 Part 1(이론)을 기초로 작성함.

몬테소리 교육은 산 로렌조(San. Lorenzo)의 ‘까사 데 밤비니(Casa dei Bambini)’에서의 교육의 실천과 연구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근본적으로 몬테소리는 유아를 위한 교육내용을 세계지향적인 보편성과 인격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유아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작업에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초기의 몬테소리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의 내용을 운동교육(motor education), 감각교육(sensory education), 언어교육(language education)으로 나누었다. 몬테소리에 의해 창설되어 현재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몬테소리협회(AMI)의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연습, 감각교육, 언어교육, 수학교육, 문화교육의 다섯 개 영역의 교육내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몬테소리 교육 기관에서도 이러한 영역별 분류를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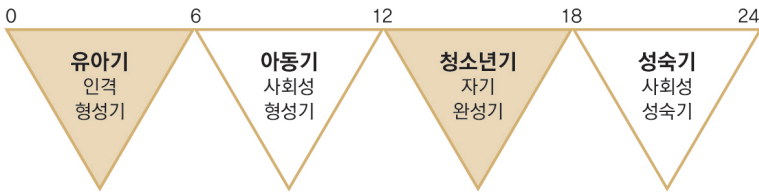
1912년 몬테소리 교육은 미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교육 및 대중 매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몬테소리와 미국 교육기관 간의 갈등, 특히 영향력 있는 교육 교사인 William Heard Kilpatrick의 몬테소리 제도 검토(The Montessori System Examined)에 대한 소책자 출판으로 인해 그녀의 아이디어는 널리 퍼지지 못했으며 1914년 이후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60년 몬테소리 교육은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수천 개의 학교로 퍼졌다. 몬테소리는 출생부터 24세까지의 포괄적인 심리발달 모델과 0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 일생동안 계속 일을 확장시켰고, 몬테소리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 몬테소리 교육 이론

몬테소리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 발달 모델로서 이 모델에 기초한 교육적 접근법으로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이들과 발달하는 성인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자기를 구축해간다. 둘째, 특히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심리적 발달의 선천적인 경로를 지니고 있다. 몬테소리는 관찰에 근거해 준비된 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 최적

의 발달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었다.

몬테소리는 인간 발달에서 4가지 뚜렷한 기간을 관찰했으며 이는 출생부터 6세, 6세부터 12세, 12세부터 18세, 18세부터 24세로 구분된다(그림 8 참조). 그녀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숙기로 구분되는 각 기간의 다른 특성, 학습 방식, 발달적 요구사항을 보고 각각에 특화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림 8] 몬테소리의 인간발달 4단계

(1) 몬테소리 교육원리

몬테소리 교육원리를 이끄는 중심 개념은 ‘자유교육’과 ‘생명교육’이다. 자유교육은 유아를 독립적 발달로 이끄는 자유에 기저를 두고 있으며, 유아의 자발적 활동에서 비롯된다. 생명교육의 기저는 유아의 타고난 생명력으로, 정신적 힘의 원리를 통해 유아는 육체 안의 정신성과 영성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준다고 것이다.

(2) 몬테소리 교육방법

몬테소리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 즉 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은 유아에게 내재된 내면적 욕구에 따라 전개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몬테소리가 주장하는 교육방법은 유아의 잠재적인 능력의 개발, 자연과의 상호의존성, 활동적인 학습, 경험이나 체험에 의한 개념 이해, 행동양식의 생활화 등에 강조점을 둔 관찰학습법, 개별화 학습법, 교구 중심의 학습법, 유아 중심의 학습법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몬테소리 교육방법의 첫 번째 특징은 관찰 학습법을 들 수 있다. 몬테소리의 과학적 교육학은 생동하는 유아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찰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유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고 한다.

몬테소리 교육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이한 것은 개별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몬테소리에 의하면 유아는 발달 단계의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개 유아가 지니고 있는 성장 가능성 및 준비성의 실현을 위해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개별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몬테소리 교육방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교구 중심의 학습방법을 들 수 있다. 몬테소리 교육과정의 총집합체라 할 수 있는 교구들은 유아의 민감기와 정신발달 단계에 맞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아들은 스스로 반복 및 집중함으로써 정상화(normalization)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몬테소리는 유아 중심의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몬테소리 교육에서 교육 주체는 교사가 아닌 유아로서, 유아 스스로가 교구를 선택하여 작업함으로써 정상화에 이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준비된 환경의 일부 요소로 간주되어 환경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며, 유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할 때까지는 촉진자로서 적극 개입하지만 일단 상호작용이 이뤄지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관찰자로 후퇴하여 간섭하거나 도와주려 해서는 안 된다.

나.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¹¹⁾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은 발달에 대한 강한 잠재력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아동 및 인간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철학으로, 유치원과 초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관계 중심적인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이고 경험적인 학습을 활용하는 학생 중심의 구성주의 교육을 주축으로 하

11) 본 장은 위키피디아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https://en.wikipedia.org/wiki/Reggio_Emilia_approach)과 Edwards 외(2012),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의 제 1부(출발점을 기초로 작성함).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도적 커리큘럼에서 탐구와 발견을 통한 존경, 책임, 커뮤니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1)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변화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교육을 비롯한 경제적 및 사회적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Loris Malaguzzi와 마을 내 부모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마을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 말라구치(Malaguzzi)의 교육방법은 많은 교육자들이 알고 있었고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영아 센터에 관한 일과 연구를 위한 국가적 그룹(National Group for Work and Study on Infant Toddler Centers) 설립되었다.

1994년 5월 24일, 비영리 단체인 레지오 어린이 국제 협회(Friends of Reggio Children International Association)는 로리스 말라구치(Loris Malaguzzi)의 사업을 촉진하고 전문성 개발 및 문화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2년 11월, 시카고의 국가 아동 교육 협회의 연례회의에서 북미 레지오 에밀리아 연합(Reggio Emilia Alliance)이 공식 출범했다.

2003년 레지오 에밀리아 시는 Istituzione Scuole de Nidi d'Infanzia를 건설하여 학교 시설과 영아 센터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치 학교와 유치원들이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6년 2월,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로리스 말라구치 국제 센터(Loris Malaguzzi International Centre)가 레지오 철학의 전문적인 연구 개발을 위한 모임 장소로 지정되었다. 2011년 9월 29일, 비영리 단체인 레지오 어린이-로리스 말라구치 센터 재단(Reggio Children-Loris Malaguzzi Centre Foundation)은 ‘레지오 에밀리아 및 세계 사람들의 삶과 지역사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로리스 말라구치 국제 센터에 공식적으로 세워졌다.

2) 철학

전 세계 다른 학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세계적인 교육 프로젝트는 가족들의 참여, 모든 인원의 공동 작업, 교육 환경의 중요성, 아틀리에의 존재 및 아틀리에리스트의 모습, 학교 내부의 주방, 교육 협조 팀과 같은 여러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본은 아동들이 ‘100개 언어’를 최상의 방법으로 통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초기 발달 과정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100개의 언어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들은 아틀리에 공간에서 많은 종류의 물체들, 많은 표현적 언어들, 많은 관점들, 손으로 하는 활동적 작업, 마음과 정서를 접하는 기회들을 제공받는데, 이는 아동들이 권리를 지니며 잠재력을 발달시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 믿음에 영향을 받은 아동들은 아름답고, 힘 있고, 유능하고,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잠재적이고 열정적이라고 생각된다. 아동들은 교육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적극적인 견습생으로서 지식의 활동적인 구성자로 보는 입장이다. 아동의 역할을 연구자로 확장시키기도 하는데, 많은 레지오 에밀리아 학교들에서는 아동들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탐구하고, 관찰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토론하는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동들은 또한 사회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각 개인별 아동보다는 다른 아동들과 가족, 교사 및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타인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초기 교육 접근법은 존 듀이(John Dewey), 장 피아제(Jean Piaget), 비고츠키(Vygotsky)와 제롬 브루너(Jerome Bruner)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업들은 초기 교육에 대한 구성주의 접근법을 반영한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접근법은 교사 능력과 발달적으로 적절한 학습에 대한 몇몇 기존의 개념에 도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많은 서구 교육자들의 믿음과 반대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시작하거나 때때

집단에서 협상할 수 있는 어린이 능력의 중요성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긴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아이들의 욕구, 관심, 능력, 그리고 부모 및 교사들에 대한 동시적인 믿음이 학교 경험의 결정에 의미 있는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모으는 것이다. 교사들은 스스로를 아동들의 생각과 관심에 적절히 대응하고 아동들이 알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으며, 부모들이 정보를 제공하며 생산적인 협동을 위한 교육 팀 구성원이라고 믿는다. 그 결과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공동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일·가정 양립 정책

1. 출산휴가

이탈리아의 출산휴가를 살펴보면, 5개월의 모성휴가가 있는 반면(산전 2개월과 산후 3개월 사용 원칙, 건강한 임산부의 경우는 산전 1개월과 산후 4개월로 사용 가능하는 등 임산부의 건강상태에 따라 탄력적 활용 가능, 80% 소득보전), 별도의 부성휴가는 없다. 모성휴가 사용 시 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으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소득보전은 전국사회보장기관에 등록된 고용 중인 어머니일 것이 요구되고 전일제 근무이든 시간제 근무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부성휴가는 따로 없지만 아버지와 입양 부모가 모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어머니 쪽의 심각한 질병, 죽음, 양육포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지 않은 모성휴가를 아버지가 사용 가능하며, 또한 입양의 경우 어머니와 싱글아버지는 아이가 6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모성휴가 3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1〉 유급 출산 휴가(2016)

구분	기간(주)	월급 지급률(%)
한국	21,8	-
일본	12,9	77,6
EU 평균	21,7	80,0
스웨덴	17,7	-
OECD 평균	14,0	67,0
이탈리아	12,9	79,5
미국	0,0	0,0

자료 : OECD(2016a), Family Database, Chart PF2,1,A, Paid maternity leave, 2016.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2. 육아휴직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각자 6개월의 부모휴가(아이 1명 당 최고 11개월의 범위 내에서, 6개월에 대해서는 30%의 소득보전)가 보장된다. 부모휴가는 양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각자 사용 가능하며, 상호 양도가 불가하다. 자영업 부모도 부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지 3개월만 보장하며 이 역시도 아이의 첫 1년 동안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표 22〉 유급 육아 및 가정 양육 휴가(2016)

구분	주 길이	월급 지급률 (%)
한국	52,0	28,5
일본	44,0	59,9
EU 평균	43,8	-
스웨덴	42,9	57,7
OECD 평균	37,5	-
이탈리아	26,0	30,0
미국	0,0	0,0

자료: OECD(2016b), Family Database, Chart PF2,1,B,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3. 유연근무제

이탈리아의 유연근무제는 휴가시간(전일 또는 반일)을 누적하고 일일 근무의 시작과 끝을 바꿀 가능성(탄력근무제), 휴가시간(전일 또는 반일)을 누적할 수 있으나 일일 근무의 시작과 끝을 변경할 수 없음(시간 선택제), 일일 근무의 시작과 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휴가시간을 누적할 수는 없는(시차출퇴근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표 23〉 유연근무제

구분	탄력근무제	시간 선택제	시차출퇴근제
OECD 평균	53.4	18.5	14.8
유로존 평균	50.5	17.5	16.4
EU 평균	49.1	19.2	15.1
이탈리아	40.0	11.5	25.8

주: 1) 탄력근무제: 휴가시간 누적 가능과 근무 시작과 끝 조정가능

2) 시간 선택제: 휴가시간 누적 가능, 근무 시작과 끝 조정 불가

3) 시차출퇴근제: 휴가시간 누적 없음, 일일 근무 시작과 끝 조정 가능

자료: OECD(2013c), Family Database, Data for LMF2.4.A, 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전반적으로 휴가시간(전일 또는 반일)을 누적하고 일일 근무의 시작과 끝을 바꿀 수 있는 탄력근무제의 형태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비율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탈리아는 전반적으로 유연근무제 사용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시차출퇴근의 비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녀 근로자의 업무시간 조정의 유연성을 살펴볼 때, 다른 유럽 국가와 OECD 국가에 비해 이탈리아의 남성 근로자와 여성근자 모두 업무시간의 조정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24〉 남녀 근로자의 업무시간 조정 정도

단위: %

구분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OECD 평균	36,5	36,5
유로존 평균	31,1	31,6
EU 평균	30,8	31,4
이탈리아	27,7	26,5

자료: OECD(2015a),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LMF2.4.C, 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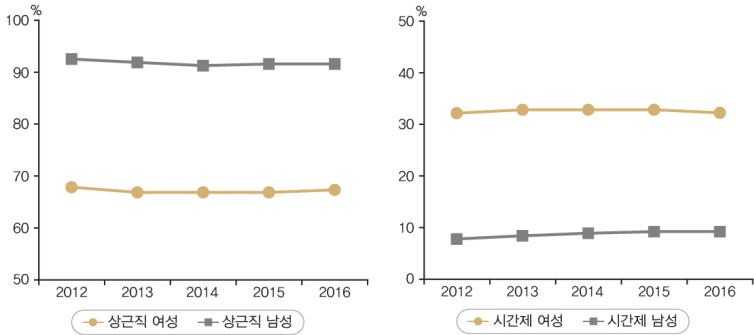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성별에 따른 상근직 및 시간제 직원 현황을 보면 다음 〈표 25〉과 같다. 이를 통해 여성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낮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그림 9 참조).

〈표 25〉 성별 상근직 및 시간제 직원 현황

단위: 천명(%)

연도	여성			남성		
	상근직 Full-time	시간제 Part-time	계	상근직 Full-time	시간제 Part-time	계
2012	6,345 (67.8)	3,014 (32.2)	9,359 (100.0)	12,167 (92.5)	990 (7.5)	13,157 (100.0)
2013	6,220 (67.2)	3,032 (32.8)	9,252 (100.0)	11,789 (91.8)	1,060 (8.2)	12,849 (100.0)
2014	6,242 (67.1)	3,063 (32.9)	9,305 (100.0)	11,754 (91.4)	1,110 (8.6)	12,864 (100.0)
2015	6,275 (67.2)	3,059 (32.8)	9,334 (100.0)	11,872 (91.5)	1,102 (8.5)	12,974 (100.0)
2016	6,366 (67.4)	3,084 (32.6)	9,450 (100.0)	11,952 (91.5)	1,107 (8.5)	13,059 (100.0)

자료: OECD(2017d), OECD statistics, FTPT employment based on a common definition,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TPTC_D,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그림 9] 성별 상근직, 시간제 직원 현황

이탈리아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6년 1,730시간으로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친다(표 26 참조).

<표 26> 이탈리아 연간 노동시간(2012-2016)

연도	이탈리아	OECD 평균
2012	1,734	1,770
2013	1,720	1,765
2014	1,717	1,764
2015	1,723	1,766
2016	1,730	1,763

단위: 시간

자료: OECD(2017a), OECD statistics,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그러나 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면(<표 27> 참조) 2014년 기준 이탈리아 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은 상근직이 평균 39.2시간, 시간제가 19.4시간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상근직은 유사하나 시간제의 근로시간은 많은 편에 속한다. 남성의 경우 또한 시간제의 주당 근로시간은 18.9시간으로 OECD의 평균인 16.4시간에 비해 많으나, 상근직 42.0시간으로 OECD 평균인 43.1시간보다 낮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탈리아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27〉 이탈리아 주당 성별 노동시간 통계(2012-2016)

단위: 시간

구분	여성				남성			
	이탈리아		OECD 평균		이탈리아		OECD 평균	
	상근직	시간제	상근직	시간제	상근직	시간제	상근직	시간제
2012	39,0	19,7	39,5	16,8	41,8	19,0	43,2	16,4
2013	39,1	19,5	39,5	16,8	41,9	18,7	43,1	16,4
2014	39,2	19,4	39,5	16,8	42,0	18,9	43,1	16,4
2015	39,2	19,5	39,5	16,9	42,0	18,8	43,0	16,4
2016	39,2	19,5	39,4	16,9	42,0	19,1	42,9	16,4

자료: OECD(2017b), Average usual weekly hours worked on the main job.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VE_HRS,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맺음말

이탈리아는 예술의 본고장, 세계문화의 수도, 열린 박물관 등 문화유산으로 세계적인 국가로서 이를 아직도 잘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근간으로 지금도 디자인과 패션 등의 창의적인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을 중시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낮은 출산율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육아지원 제도와 육아지원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탈리아는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국가이다. 이탈리아는 건축에서부터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걸쳐 풍부한 문화와 예술 작품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은 국민들의 생활과 가족관계, 아울러 육아와 이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이탈리아 문화를 통합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이끌었다.

둘째, 이탈리아는 가족 중심적 국가이다. 전통적으로 가족 또는 대가족이 국가의 도움 없이 아동 보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전통적 성역할에 의존해 오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중반에도 대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가족 패턴이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이탈리아의 여성 고용율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며 일본보다 낮다.

셋째, 최근 이탈리아는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가족 중심적 국가로서 보육보다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높은 편인데, 주로 초·중·고 전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었다. 이는 주로 영·유아 시기는 가족이 중심이 되어 보살피고 초·중·고 전 시기인 유치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한다.

넷째, 이탈리아는 전반적인 질 관리 모니터링은 약하지만, 교사의 질 관리 체계는 잘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질 관리의 초점은 교직원 자격을 준수하면서 학부모 간의 소통과 교육 과정의 원활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0-6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통해 향후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바이다.

다섯째, 이탈리아는 자신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철학을 존중하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몬테소리와 같은 아동중심의 전인적 발달을 중시하는 프로그램과 레지오 에밀리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 커리큘럼에서 탐구와 발견을 통한 존경, 책임, 커뮤니티의 원칙들을 배우게 하도록 실천하고 보급해오고 있다.

• 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2017). 이탈리아. <http://terms.naver.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5678&cid=40942&categoryId=34083>(인출일: 2017년 9월 21일)
- 위키피디아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 https://en.wikipedia.org/wiki/Reggio_Emilια_approach (인출일: 2017년 10월 8일)
- 위키피디아 몬테소리 교육. (https://en.wikipedia.org/wiki/Montessori_education, 인출일 2017년 10월 8일)
- 신동주 · 염지숙 · 장혜진(2013).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관리방안 국제비교 연구. 교육부 · 덕성여자대학교.
- 이영석 · 강현수 · 김경윤 · 김효실 · 손혜정 · 이영미 · 최나영 · 최안복 · 최진아 (2014). 몬테소리 개론. 서울: 동문사.
- Antonelli, F. (2014). Case Study: Italy. 172-215. European Commission, Education and Training(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Eurydice and Eurostat report, p.174. <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 Gandini, L., & Edwards, C. P. (2006) 『어린이(Bambini): 이탈리아 접근의 영아 보육』. 김미숙 · 박숙영(역). 서울: 창지사. (2001년 원저 발간)
- OECD(2007). Babies and Bosses: Policies toward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http://www.oecd.org/els/family/39696356.pdf>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IEA(2016). Early childhood policies and systems in eight countries: Findings from IEA's early education study. <http://eces.iea.nl>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인출)
- ISTAT(2016). Socio-educational services for early childhood: the census of public and private units and municipalities expenditure.

-
- http://www.istat.it/en/files/2016/11/EN_Asili-nido_rev.pdf?title=Socio-educational+services+for+early+childhood+-+4+Nov+2016+-+Full+text.pdf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2016). Italy in figures.
<http://www.istat.it/en/archive/200600> (인출일: 2017년 9월 22일).
- OECD(2013a).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PF3.1.A.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3b).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PF1.6.C. 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are important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 (0-5 year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3c). Family Database, Data for LMF2.4.A. 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Proportion(%) of companies that report providing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to at least some employees, by typ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3d). Online Survey on Monitoring Quality in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Network on ECEC. Table 3.2.
<http://dx.doi.org/10.1787/888933243065>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 OECD(2013e). Online Survey on Monitoring Quality in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OECD Network on ECEC, Table A5.1.
<http://dx.doi.org/10.1787/888933243423>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 OECD(2014a). Family database, Chart LMF1.2.A. Maternal employment rates, 2014 or latest available year.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8월 28일).
- OECD(2014b). Family database, Chart LMF1.2.A. Maternal employment

-
- rates by number of children, Employment rates(%) for women(15-64 years old) by the presence of at least one child(aged 0-14) and number of children aged 0-14, 1998-2014.
-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8월 28일).
- OECD(2014c). Family database, Chart LMF1.2.C.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2014 or latest available year.
-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4d). Family database, Chart PF3.2.E. Enrolment rates for 3-to-5-year olds in pre-primary education school, 2014 or latest available과 participation rates in formal childcare and pre-school services, 0-to-2-year- olds, 1995-2015.
-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5a).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LMF2.4.C. Gender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employees to set working time arrangements. Proportion(%) of employees that have at least some ability to set their own working time arrangements by gender.
-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5b).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Table 3.3. OECD Publishing,
- <http://dx.doi.org/10.1787/888933243071>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 OECD(2015c).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Table 5.2, OECD Publishing, Paris.
- <http://dx.doi.org/10.1787/888933243347>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 OECD(2015d).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Table 4.2.
- <http://dx.doi.org/10.1787/888933243213>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 OECD(2015e).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
- Education and Care (ECEC). Chart 5.3.
<http://dx.doi.org/10.1787/888933243423>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 OECD(2016a). Family Database. Chart PF2.1.A. Paid maternity leave, 2016.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6b). Family Database. Chart PF2.1.B.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6c). Society at a Glance. Fertility rates across the OECD are typically below replacement level.
http://dx.doi.org/10.1787/soc_glance-2016-7-en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7a). OECD statistics.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7b). OECD statistics. Average usual weekly hours worked on the main job.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VE_HRS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7c).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Italy”.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Key tables from OECD.
<http://dx.doi.org/10.1787/20752288-table-ita> (인출일: 2017년 9월 21일).
- OECD(2017d). OECD statistics. FIPT employment based on a common definition.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IPTC_D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 OECD(2017e). Start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ountry Note: Italy, 1-35.
- TFIEY(2016). Overview of ECED provision in Italy: Diversity and new

challenges. Susanna Mantovani, 1.2, The Italian ECEC System, The World Bank(2017).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id=1565fbc0&Report_Name=fertility (인출일: 2017년 9월 22일).

〈참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외교부. <http://mofa.go.kr> (인출일: 2017년 9월 21일)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인출일: 2017년 9월 21일)

위키피디아. <https://www.wikipedia.org> (인출일: 2017년 10월 8일)

OECD Education GPS: The world of education at your fingertips

<http://gpseducation.oecd.org/CountryProfile?primaryCountry=ITA&reshold=10&topic=EO> (인출일: 2017년 7월 31일)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The World Bank: Databank. <http://databank.worldbank.org> (인출일: 2017년 9월 22일)

도남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S. Illinois University 유아교육학 석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전. 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조교수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21

이탈리아의 육아정책

발행인 • 백선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편역 • 도남희

발행일 • 2017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http://www.kicce.re.kr>

대표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730-3313

인쇄 • (주)승림디앤씨 02) 2271-2581~2

ISBN 979-11-87952-36-7 93330

정가: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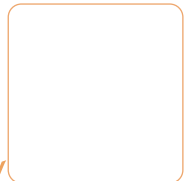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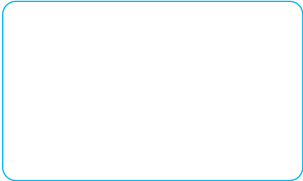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 제 1권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 (2006) | 유희정
- 제 2권 스웨덴의 육아정책 (2006) | 문무경
- 제 3권 호주의 보육정책 (2007) | 서문희
- 제 4권 영국의 육아정책 (2007) | 문무경
- 제 5권 미국의 육아정책 (2008) | 조은경 · 김은영
- 제 6권 캐나다의 육아지원정책 (2008) | 신나리 · 조혜주
- 제 7권 핀란드의 육아정책 (2009) | 이윤진 · 송신영
- 제 8권 프랑스의 육아정책 (2009) | 정미라 · 조희연 · 안재진
- 제 9권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2010) | 김은설 · 김문정
- 제10권 독일의 육아정책 (2010) | 이명환 · 박수연
- 제11권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II) (2011) | 유해미 · 유희정 · 장경희
- 제12권 대만의 보육정책 (2011) | 이정림 · 邱志鵬
- 제13권 호주의 보육 · 유아교육 정책 동향 (2013) | 서문희 · 이해민
- 제14권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2013) | 이정원 · 이세원
- 제15권 스웨덴의 육아정책(II) (2015) | 최윤경 · 김윤환 · 이해민
- 제16권 아일랜드의 유아교육 · 보육 정책 (2015) | 최은영 · 장해진 · 송신영
- 제17권 핀란드의 육아정책(II) (2015) | 이윤진 · 정도상
- 제18권 이스라엘의 육아정책 (2016) | 권미경 · 이강근
- 제19권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2016) | 강은진
- 제20권 덴마크 보육 · 유아교육 정책 동향 (2017) | 양미선



Child Care

Education



Polic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Tel. 02-398-7700 Fax. 02-398-7798



9 791187 952367

ISBN 979-11-87952-36-7